

“유커 잡아라” 원도심 쇼핑 특화거리 만든다

<旅客=중국 관광객>

목포시, 상가 378곳 대상 ‘사후 면세점’ 지정 추진 차별화된 상품 개발 시급...절차 불편 해소 과제도

목포시가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밀려오는 유커(旅客=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사후 면세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의 ‘차안 다니는 거리’ 일대에 있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해 외국인 쇼핑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를 출국시 공항내 면세(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과세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제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이에 사후 면세점 추진방향과 주변 상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과제는 없는지 짚어봤다.

◇사업 추진방향과 상인 반응=원도심 차 없는 거리, 보해상가 거리, 구 목포극장 거리 등에 위치한 상가 378곳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해 쇼핑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 취급 품목은 화장품, 귀금속, 건강식품, 의류, 악세서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을 들여 특화거리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중국어·일본어 공용 와이 파이를 설치하고, 외국어 간판과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요구객 대상 어플과 특화거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 같은 외국인 쇼핑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고 적극적이다. 원도심상인회 김부영 회장은 “상인들 모두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회장은 “사후면세점 지정을 계기로 상인들이 단합·협력하는 동기 부여와 함께 앞으로

경기전망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다”면서 “특히 공동화 현상으로 낙후된 거리가 선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제는 뭐가=반면 사후 면세점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공항 면세점처럼 구매 당시 세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출국시 신고를 거쳐 한 달 후에 환급 받는 시스템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화장품이나 의류 등 판매 품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웬만한 품목은 공항 면세점에 있는데 굳이 미리 물건을 사서 들고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지역구인 최기동 시의원은 “유커들의 구매력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선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면세점에 없는 목포시만이 갖는 토속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의원은 목포가 주요 집산지인 김·다시마·미역 등 건어물을 주요 대상 품목으로 정해 고급 상품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목포만의 브랜드인 DJ 스카프나 넥타이, 옥(玉)공예 등도 좋은 소재라며 독창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시 김문옥 관광경제국장은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외국산 명품이 아니라 생필품 위주로 차별화하고 쇼핑거리를 지정해 집적화시킨다면 승산이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이곳을 관광코스

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정받은 상가마다 1년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취급 품목을 명시한 리플릿을 제작해 손쉽게 구매하고 싶은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글 사진 임영춘·고규석 기자 lyc@



목포시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쇼핑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보해상가 거리(위)와 차 없는 거리.

대양산단 기업 유치 대신 화물차 차고지 추진 빈축

목포시가 대양 일반산업단지내에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이하 화물차 차고지)’ 건립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의 노력으로 전남도가 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2016년 사업비로 80억원을 배정해 대양산단내 9만1919㎡에 600대 규모의 화물차차고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대양산단 8.6% 분양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할 산업단지내에 화물차 차고지를 건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는 기업유치는 물론 고용창출과 아무런 상관없이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주차장 조성인데, 대양산단 분양률이 8.6%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랐다”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양실적에 목마른 시가 자충수를 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연초에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전국 5개 권역(11개 시·도)에 화물 공용 차고지 21곳을 건설하고, 휴게소 13곳을 만들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실제로 화물차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시비 매칭비율이 9대 1이었지만 현재는 7대 3으로 바뀐 상황이다. 108억 원에 달하는 시비 확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금액이 한정돼 있어 국비예산 배정도 확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목포시는 화물차 차고지 건립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252억원과 시비 108억원 등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시민의 상’ 위상 높이기 수상자 올해부터 1명만 선정

‘시민 없는 시민의 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목포 시민의 상’ 규정이 대폭 강화돼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목포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민의 상 수상자가 최대 6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상’은 그동안 지역사회 봉사상, 교육문화상, 경제상, 체육상, 효행상, 특별활동상 등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현저한 공이 있는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수적 여건으로 심사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부 음모자들의 심사위원 로비설이 불거지는 등 취지와 본질을 흐린다는 비난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홍림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민이 아닌 사람이 ‘목포시민의 상’을 받는가 하면 중복 수상까지 발생해 상의 권위가 추락하고, 상과 관련된 로비설이 불거지는 등 각종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며 “상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민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해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유커 물리는 DJ기념관...3개월간 5000명 방문 예정

‘뉴베스트투어’와 업무협약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 DJ기념관)이 유커들의 관광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DJ기념관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소재 여행사인 (주)뉴베스트투어(대표 김용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3개월간 주 1~2회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구이저우성 귀양시로부터 5000여 명의 유커들이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해 DJ기념관과 목포지역을 관광하게 된다.

협약 체결 이후 2차례에 걸쳐 350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DJ기념관을 관람했다.

이들은 주로 4박5일 또는 5박6일의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 DJ기념관을 비롯해 유달산, 갯바위 등 목포와 인근지역에서 1박2일을 보내고, 광주·제주·서울 지역 관광을 한 이후 출국하고 있다.

최명호 관장은 “중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 알려져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DJ기념관이 중국인 대상 여행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DJ기념관을 중국에 적극 홍보하고, 목포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입출금이자유로운 일한자유예탁금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p>동강대학 합점점 말바우시점</p> <p>두암신협 본점 (말바우 시거리) 263-0136</p>	<p>두암타운거리 합점점 기산로말바우점</p> <p>두암신협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264-1232</p>	<p>부영아파트 합점점 청담지구 호반아파트</p> <p>두암신협 청담지점 (호반아파트 청문 맞은편) 572-9511</p>
---	--	--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